

“엄마 된 후 맡은 역할 장금이와 느낌 달라요”

MBC ‘사임당’ 이영에 1인 2역 도전 ... 내일 첫 방송
 송승헌 “이겸 실존인물 아니나 사임당과 잘 어울려”

14년 만에 다시 한복을 입은 배우 이영에. 부드럽고 따뜻한 빛깔의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머리에 가채를 올린 그의 모습은 포스터 한 장만으로도 여전히 독보적이다.

2003년 MBC TV 드라마 ‘대장금’에 출연한 이후 14년 만인 2017년, 이영에는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신사임당으로 변신했다.

그동안 그는 한 사람의 아내가 됐고, 쌍둥이의 엄마가 됐다. 그래서 SBS TV ‘사임당, 빛의 일기’는 ‘대장금’과는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영에는 이번 드라마에서 유교적 선입견에 갇힌 ‘현모양처 신사임당’이 아닌 불꽃 같은 삶을 살았던 ‘천재화가 신사임당’을 절절하게 그려낸다.

사임당의 기록물로 추정되는 ‘수진방 일기’를 파헤치는 위경림 서자운도 그의 뒤, 조선과 현대를 오가는 1인 2역이다.

이영에는 24일 ‘사임당, 빛의 일기’ 제작발표회에서 “어떤 것보다 이야기가 재밌었다”며 “500년 전 사임당도 지금 5만원권에 박제해놓은 듯한 모습을 원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여자로서의 사임당을wein물로 생명을 불어넣은 게 재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임당이 ‘사랑’을 했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놀랄 것 같다”며 “멜로가 들어간 것 대해 신선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번 작품을 위해 ‘대장금’ 때 궁중요리를 직접 배웠듯 민화 전문가에게 그림을 사사했고, 의상과 대사를 직접 연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영에로서도 전작 ‘대장금’의 이미지는 넘어야 할 과제였을 터.

이영에는 “대장금과 사임당의 인물 색깔이 겹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임당을 통해 대장금을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겠느냐”면서 “제가 미혼일 때 표현했던 대장금과 아내이자 엄마가 된 입장에서 표현한 사임당은 많이 다를 것이고, 색도 폭도 더 깊고 넓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운명적인 사랑으로 호흡한 송승헌에 대해선



송승헌·이영에

“사극의 송승헌씨는 상상도 못 했는데 이 드라마에서 송승헌씨는 정말 단연컨대 제일”이라며 “여성으로서 많이 설레기도 했고 덕분에 멜로에 감정 이입도 잘됐다”고 극찬했다.

그는 이번 드라마가 100% 사전 제작된 데 대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 피가 말랐지만, 어린아이를 둔 엄마로서 육아도 잘할 수 있었고 실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좋았다”며 “앞으로도 엄마, 아내의 역할이 있지만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드라마와 영화가 있다면 다양한 장르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송승헌은 “이겸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지만 실제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임당을 사랑하는 마음과 가진 매력이 멋진 캐릭터”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영애와 함께 호흡을 맞추게 된 데 대해 “내가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과연 이영에 선배님과 연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곤 사실 상상을 못했다”고 배역을 맡았을 당시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했다.

송승헌은 “이영에 선배님과의 연기는 행복한 시간의 연속이었다”며 “하지만 처음에 너무 긴장해서 계속 NG를 냈다. 대사가 안 나오면서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속으로 그랬다. 너무 가슴이 뛰었다”고 회상했다.

이영애와 한 작품 안에서 만난 기쁨은 물론 잘 전해졌지만, 그래도 ‘사임당’에 포커스가 집중된 드라마에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하기까지 고민이 없진 않았을 것 같았다.

송승헌은 이에 대해 “제목이 ‘사임당’이라고 해서 ‘에이, 왜 해?’라고 하고 하지 않으면 굉장하 후회할 만큼 이겸은 매력적인 캐릭터”라며 “내가 이겸을 좀 더 만들어 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최선을 다했고, 실제로 이영에 선배님이 맡은 사임당과 이겸의 조합이 놀랄 정도로 잘 표현됐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송승헌은 현재 중화권 톱스타 유역비와 교제 중이기도 하다. 장거리 연애이기도 하고, 두 사람 다 바쁜 만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에 따른 그리움이 ‘사임당’을 찍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송승헌은 강조했다. 그는 “여자친구가 이영에 선배님의 굉장한 팬이기도 하고 이번 작품을 항상 응원해줬다”며 “자주 못 보지만 그리운 마음을 ‘사임당’에 녹여서 열심히 촬영했다. 여자친구와 아주 잘 만나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송승헌은 가장 기억에 남는 촬영 신(scene)으로는 이겸이 어린 시절 운명적으로 만난 사임당과 갑작스러운 이별을 겪은 후 20년 만에 다시 재회했는데 사임당의 옆에 형편없는 남편을 보고 그를 데리고 가서 때리려 하는 장면을 꼽기도 했다.

‘사임당, 빛의 일기’는 오는 26일 밤 10시 1·2회가 연속 방송된다.

/연합뉴스

조승우·배두나, 안방극장 복귀

tvN ‘비밀의 숲’서 호흡

배우 조승우와 배두나가 tvN 새 드라마 ‘비밀의 숲’에 출연, 오랜만에 안방극장을 찾는다.

24일 tvN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방송될 ‘비밀의 숲’에서 조승우와 배두나가 주연으로 호흡을 맞춘다.

‘비밀의 숲’은 감정을 잃어버린 검사가 의로운 경찰과 함께 검찰청 내부의 비밀을 파헤쳐 진짜 법인을 쫓는 내용의 드라마. ‘시그널’ 등 탄탄한 극본의 장르물로 호평 받았던 tvN이 자신있게 선보이는 신작이다.

조승우는 비범한 머리로 태어났지만 어릴 적 뇌수술을 받은 후 감정을 잃어버리고 오직 이성으로만 세상을 보는 차갑고 외로운 검사 황시묵으로 분한다. 배두나는 황시묵과 달리 긍정적이고 따뜻한 시선을 지닌 의로운 경찰 한여진으로 변신해 황시묵과



배두나·조승우

살인사건에서 공조한다.

조승우와 배두나가 안방극장에 컴백하는 건 오랜만이라 이번 작품은 더 화제를 모은다. 조승우는 2014년 방영된 SBS TV ‘신의 선물-14일’ 이후 3년만에, 배두나는 2010년 방영된 MBC TV ‘글로리아’ 이후 7년만에 드라마에 복귀하는 것이다.

‘비밀의 숲’은 100% 사전 제작을 목표로 조만간 배우 캐스팅을 마치고 이달 말 대본 리딩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런닝맨’ 기존 멤버들과 계속 달린다

제작진 “중영 아쉬워 지속 ... 힘든 결정 만큼 최선 다할 것”

SBS TV 대표 예능 ‘런닝맨’〈사진〉이 중영 계획을 반복하고 방송을 계속 이어간다.

SBS는 24일 “런닝맨 중영을 아쉬워하는 국내외 팬들의 목소리에, SBS와 6인의 런닝맨 멤버들은 현재 멤버 그대로 런닝맨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런닝맨’은 지난달 제작진과 멤버 간 의사소통의 문제가 불거진 끝에 다음달 중영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SBS는 “2010년 런닝맨을 최초로 기획한 신임 남승용 SBS 예능본부장은 올 초부터 최근까지 런닝맨 멤버를 모두 만나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멤버들과의 대화

를 통해 그 동안 런닝맨 개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거듭 사과했고, 이에 6인 멤버들은 런닝맨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남승용 본부장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준 멤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지난 7년간 런닝맨을 사랑해 주신 국내외 팬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더욱 재미있는 런닝맨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재석, 이광수, 하하, 김종국, 송지효, 지석진이 그대로 출연하는 ‘런닝맨’이 계속 방송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세나 봄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SBS 아침연속극 〈아일 쓰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신년기획 2부작 〈재〉 55 감성애니 하루 〈재〉	00 수목드라마 〈맨몸의 소방관〉(재)	00 주말드라마 〈불러라 미룡아〉 (재)	00 토닥토닥 꼬꼬 30 고양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00 MBC 청요뉴스 20 수목드라마〈미생나인〉 (재)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품지락 55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웍스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방학특집 청소년 공감 콘서트 온드림스쿨			
2	50 한국인의 밤상 〈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20 텔레문스터 30 드림 주니어 스페셜	00 2시, 뉴스브리핑
3	40 세계는 지금 스페셜 55 토폰생활제조	00 자정공부책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55 프리파라 2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 스페셜	00 꼬마어서 쿵도령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재) 15 건강한 토코소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프로젝트TV 필동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 블로그 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5 공감다큐, 사람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트릭 앤 투루	5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30 리얼스토리 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00 KBS 뉴스9			
10	00 특별기획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00 수목드라마 〈김과장〉	00 수목드라마 〈미생나인〉	00 수목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
11	00 KBS 뉴스라인 40 2017 KBS 신년음악회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2		10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55 함께사는세상 희망프로젝트 나눈행 행복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4:55 모피와 친구들	20:40 다큐 오늘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태평양 섬문화 기행 - 화산이 만든 보물섬, 까미진〉	10:30 한국기행	15:05 두키탐험대	〈산골마을 군것질〉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갯벌 멸치찜과 갈매 튀장무침〉	15:20 꼬마기사 마이크	20:50 세계테마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35 오솔상자(2)	〈필리핀 보물섬, 비사야 제도 - 달콤한 꿈, 네그로스 섬〉
07: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2:00 EBS 정오 뉴스	15:45 레이디버그(재)	21:30 한국기행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6:15 두다다콩	〈아날로그 감성여행 - 나의 살던 고향은〉
07:45 꼬마버스 타요	12:40 지식채널 e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21:50 EBS 다큐 프리덤
08:00 당동당 유치원 1~3	12:45 EBS 초대석	16:45 당동당 유치원 1~3(재)	22:45 국한작업
08:45 최고다! 호기심 천국	13:40 오 마이 미래 2035 〈신곡한집업 - 네이미스트〉	17:30 꼬마버스 타요(재)	〈겨울 복어잡이〉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13:50 그림을 그려요(2)	1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23:35 장수의 비밀
09:15 시계마을 타키톡	13:55 코코롱3(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너스나인1~4	24:05 세상의 모든 범죄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4:25 책과 땅	19:00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시원 전발 공부 하지 않는 이유?〉
		19:30 EBS 뉴스	
		19:50 명의(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25일(음 12월 28일 壬子)

子

48년생 표리부동하니 전후의 사정과 면모를 잘 살펴라. 60년생 미리 확보해 두지 않는다면 서두르게 될 것이다. 72년생 끝나는 마당에 문제가 붙을 수도 있다. 84년생 혼탁함에서 벗어나 흑과 백으로 나누어지겠다. 행운의 숫자 : 76, 20

丑

49년생 참으로 어중간하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수 다. 61년생 불면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과감하게 막 잘라서 개선해야 한다. 73년생 쉽게 융합될 수도 있으나, 85년생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5, 88

寅

50년생 대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만한 정형도 아니다. 62년생 지난 일에 얽매었다면 동력이 약화 되리라. 74년생 이슬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은근히 진행될 수도 있다. 86년생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도다. 행운의 숫자 : 66, 62

卯

51년생 차별화하지 않는다면 과격적인 진전을 도모하기 힘들 것이다. 63년생 시일을 두고 진지하게 고민한 후에 방안을 모색하자. 75년생 최선을 다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87년생 기다리고 있는 것이 효과적이다. 행운의 숫자 : 82, 68

辰

52년생 오래된 인간관계에서 파생된 인연이 견인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64년생 당해 문제를 한계면에 다루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76년생 대수습지 않게 여기다가는 큰일을 망할 수도 있느니라. 88년생 목적을 달성하리라. 행운의 숫자 : 50, 47

巳

53년생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65년생 쉽게 보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으나, 77년생 급변하고 있는 추세나 적절히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89년생 권유받을 수도 있으나 행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행운의 숫자 : 41, 40

午

42년생 말이 아니면 하지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54년생 오는 손님 막지 말고 가는 손님 잡지 말라이다. 66년생 진귀한 기회이니 수용하자. 78년생 반드시 작용하고 있는 바가 있다. 90년생 암시하는 징후가 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4, 20

未

43년생 예의를 두지 말고 원칙대로 처리해둬야 뒤탈이 없다. 55년생 불합리한 점을 제거하자. 67년생 효과를 보기에는 아직 이른 마당이다. 79년생 참에한 이해관계로 인해 민감하지겠다. 91년생 경청하자. 행운의 숫자 : 78, 89

申

44년생 확실하여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56년생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긴다면 마음 편할 것이다. 68년생 세밀하게 재검토하지 않으면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80년생 다양한 기회와 조건들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1, 58

酉

45년생 확장하려 하지 말고 유지함이 합리적이다. 57년생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제스처와 채널이 절실할 필요하다. 69년생 시원스럽게 진행되지만 장기적이지 않다. 81년생 목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답을 수 있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6, 57

戌

46년생 행동을 같이 하지만 마음은 콩 밭에 가 있다. 58년생 제반 여건을 고려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맞다. 70년생 성취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희희낙락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82년생 방법에 따라서 상황이 판이해질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42, 39

亥

47년생 관계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음을 감안하는 것이 옳다. 59년생 숙명임을 알고 유연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1년생 주변 사람의 괴로움을 보게 되리라. 83년생 예상보다는 나은 결과이다. 행운의 숫자 : 94, 85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